

[러브터치 : 의사 맞춤형도집회]

메시지 3 - 의사와 일

하용조 목사 / 2004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축복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문을 열듯이 하나님께 문을 열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먼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과 지금까지 당신 혼자서 살아 왔다면 이제 당신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가정임에도 우리는 가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모두 불행합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유혹이 있습니다. 비밀도 많고 남모르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식, 부모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불행해 집니다.

부부의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질상 갈등, 문화적 갈등, 상처의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은 창조의 행위

오늘은 직업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직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 첫째, 우연히 그 직업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요구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내 의지 이거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을 승계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가 되었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의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일합니다. 취미는 자기

돈을 들어서 밤새서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은사가 되면 행복합니다. 잘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데 설교가 잘 안된다면 모두가 괴롭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 직업일 때와 자기 은사와 직업이 맞을 때는 행복합니다. 직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가 일입니다. 노동은 근본적으로 창조의 작업입니다. 노동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계속 나옵니다. 창조성이 있는 것이 직업입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일 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밥 먹기 위해 노동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선물 중의 선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만들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 지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사는 육축과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을 가리켜 노동, 일,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여러분의 직업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창조의 극치인 인간의 모든 질병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픈 인간을 낫도록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집고치는 일, 옷 만드는 일도 좋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진찰하고 약을 줘서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것은 은혜중의 은혜요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비전과 축복에 이르는 직업

직업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의사라는 직업을 주신 것은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묻지 마십시오. 의사라는 직업에 자기 자부심과 소명,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려면 의사에게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상 환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성령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의사라는 직업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기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돈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일 뿐입니다. 돈, 성공,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은 천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평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도면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빈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셋째, 나는 여러분의 직업이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비전에는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줍니다. 어디서 일하시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동료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동료를 밟고 일어서지 마십시오. 동료를 축복해 주십시오. 동료를 섬겨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라

오늘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십시오.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보지 않은 미래를 자기가 막습니다. 미래에 대해 문을 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축복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문을 열듯이 하나님께 문을 열어 보십시오.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삼일동안 이곳에 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에는 누구든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게도 목사의 모델이 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 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모델로 삼고 따라 가십시오. 천국까지 확실하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